

옛 나주극장 상반기 매입...문화공간 조성 속도

시, 나주신협과 업무 협약...읍성권,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

나주시가 옛 나주극장을 상반기 중 매입해 역사·문화 재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옛 나주극장의 소유자인 나주신협등조합과 20일 '옛 나주극장 문화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나주시는 협약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뒤 공간 조성을 위한 세부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역은 (재)지역문화진흥원이 맡는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옛 나주극장 주변 기초현황과 환경 분석, 문화 재생방안 수립, 단계별 추진 내용,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단계별 추진 방향 등을 수립하게 된다.

나주시는 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로 내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전라도 옛 도읍지인 나주시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유산 활용사업 등을 연계해 나주 읍성권을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옛 나주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유류공간 문화 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문화재생 사업은 유류공간으로 방치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등을 문화적 환경으로 갖춘 장소로 재창조하는 등 도시 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문화 프로젝트다.

나주시역 최초 극장인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1930년대 당시 나주천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 잠사(누에)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역사·문화 재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나주극장의 1980년대 (왼쪽) 모습과 현재 모습.



1990년 극장 문을 닫기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시민들과 히로에락을 함께한 대표적 근대문화시설이다.

2층 현대식 석조건물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빈 곳으로 남아있던 옛 나주극장이 나빌레라문화센터로 변신한 옛 나주잠사, 나주정미소 등과 함께 시민을 위한 문화 재생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대학 진학 50만원 축하금

나주시, 전남 지자체 최초

나주시가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역 고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생이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하면 50만원의 축하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축하금은 1차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부모나 본인 등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진학 축하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편적 복지 확산을 위한 것으로 전남지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나주시는 지역 고교생의 수를 고려할 때 대상자는 700~800명으로 연간 소요액이 4억원 남짓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뒤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진학하는 대학생부터 적용된다.

나주시는 이와 별도로 나주교육진흥재단 등을 통해 지난해 초·중·고생과 대학생 480여 명에게 3억9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5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청자골 장미 받아줘요"

강진군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강진군이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청자골 장미꽃 선물하기 운동'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강진군은 국토의 남단에 위치해 온난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 재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청자골 장미'는 장미의 화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어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강진지역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32농가(15.3ha)가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축소되면서 꽃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강진군은 유관 기관단체 등에 장미꽃 선물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매주 1회 화훼를 공급하는 사무실 꽃 생활화(1테이블 1플라워)도 추진한다.

생일 직원·졸업식 자녀 꽃 선물, 가정 내 화훼류 장식 등 화훼 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청자골 장미꽃 선물하기 운동이 화훼 농가의 어려운 경영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힐링 허브정원' 뽀드득 뽀드득... 동화 속 세상



장성 황룡강 '힐링 허브정원'의 아기자기한 집과 옐로우 조형물이 나무와 강과 하얀 눈이 조화를 이뤄 동화 속 이야기 세상이 펼쳐진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장성군은 잠깐만 우거진 채 방치돼 있던 황룡강 주변을 정비하고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각종 화초류가 어우러진 경관단지를 조성해 지역 대표 명소로 가꿨다.

<장성군 제공>

담양 농특산물 한가득 '담양장터몰' 개장

담빛농업관 1층에...한과·전통주 등 300여 품목 전 품목 10% 할인 행사...2월 중 온라인몰 개성

담양군이 지난 18일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담양장터몰'의 문을 열었다. 담양장터몰은 담빛농업관 1층에 마련됐다.

담양장터몰에서는 한과, 장류, 참기름, 전통주, 떡갈비, 죽로차 등 지역 47개 업체에서 생산된 300여 품목을 전시해 판매한다.

개장을 기념해 일정 기간 전 품목 10% 할인 행사를 하며, 설을 맞아 모든 구매고객에게 전년도 전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 500g을 증정한다.

담양군은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연계한 담양장터 홈페이지를 오는 2월까지 개설해 온라인 판매도 한다.

우수품목에 대해 ▲군수 품질인증제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온라인 동영상 제작 ▲라이브 쇼핑 판촉 ▲홍소핑 판매 등을 지원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장터 몰은 담양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제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꾸준한 상품개발과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강진 농어촌 빈집 정비

군, 철거비 50만원씩 지원

강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목표는 60동이며, 동당 50만원씩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관광지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 등 농어촌 미관을 해치는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 빈집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또 환경건축산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9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에는 빈집이 519동 있으며 이중 철거를 동의한 빈집은 82동이고, 나머지 437동은 철거하지 않고 추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